

#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구도적 상상력 고찰

— 『길 없는 길』을 중심으로

김부숙\*

##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서사 장치로서 '화두'의 기능
  - 2.1. 경허의 '화두'
  - 2.2. 강빈의 '화두'
3. 구도적 상상력의 실천적 문제
4. 나오는 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최인호의 『길 없는 길』에서 선(禪)불교의 핵심인 화두를 서사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특히, 선불교에서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불립문자(不立文字),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고 한다. 즉 『길 없는 길』은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궁극의 세계를 문자로 표현해 내는 시도를 한 실험적인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는 서사 장치로서 '화두'를 활용하여 말없는 세계를 문학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화두는 다른 말로 공안이라고 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해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일련의 수행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네 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데 의심, 의문, 의정, 의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인호는 소설 속에서 경허와 강빈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통하여 이 과정을 소설로 형상화하고 있다. 즉 소설 속 경허와 강빈이 화두를 풀어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우선 경허는 교학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문자를 내던짐으로써 세상 속으로 들어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인물이다. 다음으로 대학교수인 강빈은 자신이 사생이라는 출생의 비밀을 알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학교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길 없는 길』은 경허와 강빈이라는 두 인물이 '화두'라는 장치를 통하여 내적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

\* 신라대학교 문예창작비평학과 교수, amita2002@hanmail.net

358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것은 최인호가 추구한 구도의 실천적 삶이라 할 수 있다. 결론하자면 작가가 열망한 구도적 삶은 세상과 떨어져 혼자 수행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 마지막으로 대중과 함께 소통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인호의 작가의식이 대중교관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실천적 삶이었음을 『길 없는 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경허, 강빈, 화두, 실천적 삶, 구도, 길 없는 길, 선불교, 소통

## 1. 들어가는 말

최인호(1945~2013)는 1967년 단편 「견습환자」로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으며 1973년 조선일보에 『별들의 고향』을 연재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50년 가까이 꾸준한 창작활동을 해 온 작가이며 인간이 내면에서 겪는 본질의 문제에 좀 색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고자 노력한 작가다. 최인호는 대중소설에서 대하소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소설을 쓴 전방위작가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견습환자」(1967), 「타인의 방」(1971), 「돌의 초상」(1978), 「깊고 푸른 밤」(1982) 등의 중단편 소설을 대상으로 현대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탐색<sup>1)</sup>한 연구이다. 두 번째는 『별들의 고향』(1972), 『마보들의 행진』(1972), 『고래사냥』(1982)등의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세 번째로는 역사소설과 종교소설에 대한 연구로 『상도』(2000), 『유림』(2005), 『길 없는 길』(1993), 『잃어버린 왕국』(2003) 등이 있다.

최인호 소설 작품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장편 불교소설인 『길 없는 길』(1993)을 연구범위로

1) 심재욱, 「최인호 단편소설 <타인의 방> 서사구조연구」, 『우리문학연구』 45집, 2015. 289면.

한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최인호가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고 카톨릭에 귀의하고 나서도 영적 목마름을 멈출 수가 없어 구도의 길을 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그러던 어느 날 “경허의 선시 중 ‘일 없음이 오히려 나의 할 일’(無事猶成事)이란 구절에 한 방망이 두들겨 맞”<sup>2)</sup>는다.

그는 경허가 머물렀던 발자취를 따라다니다 불교에 관한 놀라운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중앙일보 신문에 3년간 연재하면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매일매일 환풍의 맑은 바람(淸風)이나 한 잔의 맑은 정화수(井華水)처럼 전해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sup>3)</sup>이었다.

그러므로 최인호는 경허가 화두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불교적 세계관을 수용해서 소설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길 없는 길』에서 경허가 화두를 참구해서 화두를 타파하기까지의 수행과정을 최인호는 서사적으로 어떻게 형상화시키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즉, 경허의 화두참구 과정과 강빈의 화두참구 과정을 통해 화두가 무엇이며 화두를 통해 무엇을 깨닫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 최인호가 구도적 실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부연하면 한국 선불교 사상의 핵심인 화두를 타파하고 난 후 실천적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모색해 가는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선(禪)의 세계는 언어를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인호는 화두의 세계를 문자를 빌어 서사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많은 선사들이 화두를 들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는 보통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직접 물어보아야 하고 또 알려준다 한들 질문자의 의식이 미치지 못하면 모를 수밖에 없다.

2) 『길 없는 길』은 4권으로 이루어진 장편소설이다. 이하 책에서 인용한 문장은 괄호 안에 숫자로 권수와 페이지만을 표시할 것임을 밝혀둔다: 최인호, 『길 없는 길』 1권, 어베크미디어, 2014, 9면.

3) 최인호, 앞의 책, 14면.

### 360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이 모든 한계 상황에 도전해가면서 치열한 구도정신으로 쓴 최인호의 소설 『길 없는 길』은 화두라는 문제에 대해 실험적이면서도 독특한 소설이기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 2. 서사장치로서 '화두'의 기능

최인호의 『길 없는 길』은 1989년 11월부터 중앙일보에 연재하기 시작하여 3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 소설은 최인호의 소설 중에서도 특이한 소설이다. 왜냐하면 불교적 소재인 '화두'를 서사적 장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佛家)에서 '화두'란 불립문자(不立文字),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세계로써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과정을 경허라는 실존인물이 화두를 통하여 삶의 문제에 접근하여 자아성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즉 언어를 문자로 표현 할 수 없는 선(禪)의 세계를 언어를 문자로 표현하는 서사적 세계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를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첫째, 마음의 세계를 문자로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는 문자에 갇혀서 이끌려 다니지 말라는 뜻이다. 소설이라는 장르는 인간의 삶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를 결국에는 문자로써 형상화하고 있다. 소설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문자라는 형식을 빌어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인호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문자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길 없는 길』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불교적 접근법으로 연구한 논문과 문학적 접근법으로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설과 불교의 선(禪)적 세계관인 화두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김인경<sup>4)</sup>은 『길 없는 길』을 최인호의 불교적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

4) 김인경,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불교적 인식 연구」, 『한국언어문화』(제63집), 2017.

며 그의 문학세계를 보다 폭넓게 접근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불교적 인식이 인물들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준다. 다만 아쉬운 점은 경허의 수행과정은 선불교의 핵심인 화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화두와 경허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경허가 화두를 들어서 깨닫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밀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강태산<sup>5)</sup>은 실존인물 경허가 최인호 소설 속에 수용된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경허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서사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

황경훈<sup>6)</sup>은 『길 없는 길』과 『유림』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불교적인 방법의 논의는 다소 부족하다.

음영철<sup>7)</sup>은 『길 없는 길』이 소설로서 미학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경허’라는 인물이 동아시아 인물이 가져야 할 불교사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오경후<sup>8)</sup>의 논문에서는 실존했던 경허에 대한 일대기를 다시 검토함으로써 경허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이동하<sup>9)</sup>는 『길 없는 길』이 “작품 자체의 참다운 목적을 한·중·두 나라 선불교의 전통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다.”<sup>9)</sup>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길 없는 길』을 면밀하게 읽어보면 최인호가 표현하고자 한 본래의 목적은 경허의 수행과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신문연재소설이다 보니 시간이 촉박했을 것이다. 또한 경허라는 인물의 행적을 공부하다 보니 결국 중국 선불교의 맥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소설의 분량은 반대했을 것이고 미학적으로도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5) 강태산, 「경허의 수행상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 2010.

6) 황경훈, 「최인호 소설의 종교성 탐구」, 『신학전망』 192, 2016.

7) 음영철, 「최인호 소설에서의 불교사상과 동아시아 담론」,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2호, 2019.

8) 오경후, 「경허·만공의 범백과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 『동학연구』, 제26집, 2009.

9) 이동하, 『한국 현대소설과 종교의 관련 양상』, 푸른사상사, 2005. 32면.

362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이 부분은 작가도 서문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sup>10)</sup> 결국 불교의 이론을 승화시키고 체득하기에는 작가로서 한계도 경험하고 힘도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길 없는 길』에서 화두를 통해 경허와 강빈을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지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2.1. 경허의 수행과정과 ‘화두’

선불교에서 말하는 ‘화두’의 정의를 살펴보면 화두(話頭) 또는 공안(公案)·고칙(古則)이라고 말하며 학문적 이론이나 분별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세계이다. “간화선은 선문답화, 즉 화두를 참구하는 것<sup>11)</sup>이다.

화두는 공안과 같은 말이며, 선문답은 단순한 문답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의 방식이다. 즉,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고 더 이상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선문답을 관문이나 깨달음의 도구로 이해하는 것보다 묻는 사람의 경계를 바로 가리켜 질문자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sup>12)</sup>고 한다.

화두를 참구해서 깨닫기까지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의심(疑心)단계이다. 이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남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의문(疑問)단계이다.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의정(疑情)단계이다. 자신이나 남을 구분하여 뜻을 하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하여 의문의 감정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

10) 최인호, 『길 없는 길』, 여백, 2013. 10면: “이 소설은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형식을 무시했기 때문에 거친 부분이 많고, 중간과 부연이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만 나는 그것을 대패로 밀어 매끄럽게 다듬지는 않았고 했다.”

11) 자명,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 민족사, 2014. 33면.

12) 자명, 위의 책, 44면

을 말한다.

네 번째는 의단(疑團)의 단계이다. 의문의 정이 깊어져서 하나의 집중된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의심이 의문으로 나아가고 의문이 의정이 되고 의정이 의단을 형성하여 화두수행<sup>13)</sup>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간화선의 선문답 방식이 ‘의심→의문→의정→의단’의 네 가지 과정을 거쳐야 화두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본 연구의 핵심은 최인호가 추구한 구도과정인 선불교의 ‘화두’를 통해 소설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우선 소설 『길 없는 길』에서 나타난 경허의 수행과정은 실제적 정보를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길 없는 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허의 일대기는 실존 인물 경허의 일대기<sup>14)</sup>와 거의 흡사하다. 이것은 만해 한용운과 만공, 그리고 한암이 보고 듣고 쓴 그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소설을 창작하였기 때문이다.

줄거리를 요약 정리하면 중의 이름은 경허이고 속명은 동욱이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9세에 어머니를 따라 청계사에서 계허스님께 의지해 머리를 깎고 계를 받는다. 14세에 이르도록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어떤 선비가 청계사에 와서 여름 한 철을 보내면서 천자문과 통감 그리고 사략등의 책을 가르치면서 경허의 비상함을 알게 된다. 그 후 계허 스님이 환속하면서 계룡산의 동학사에 있는 도반인 만화화상에게 그를 보낸다. 그는 동학사에서 23세에 이름을 드날리는 강백이 되었다. 경허는 계허 스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가는 도중 전염병이 창궐하는 마을을 지나게 되고 많은 것을 보고 듣게 된다. 그후, 경허는 다시 동학사로 돌아와서 학인들을 해산시키고 강원을 철폐한다.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단정히 앉아 오로지 화두만 참구한다. 그때의 화두가 영운선사가 제시한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도래했다.” 라

13) 자명, 위의 책, 88면

14) 한용운, 「초관서문」, 『경허집』, 유마강원, 2014, 24-25면.

한용운, 「약보 용운 찬」, 『경허집』, 유마강원, 2014, 28-30면.

한암, 「경허 화상 행장」, 『경허집』, 유마강원, 2014, 41-61면.

『한암일발록』, 한암문도회, 민족사, 1995.

#### 364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는 화두였는데 좀처럼 진척이 없다가 결국 화두를 타파하게 된다. 그 후로 전국 각지를 돌면서 성과 속에 걸리지 않으면서 무애행을 펼치다가 임자(壬子 1912)년 봄에 갑산(甲山)의 응이방 도하동 서재에서 입적한다.

경허는 23세에 강백이 될 정도로 책도 많이 읽고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스승 계허를 만나러 가면서 여태까지 배운 경전의 교학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의심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 단계가 화두참구의 첫 번째 단계이다.

바다 건너 왜놈들이 초봄부터 호열자라 불리는 괴질을 우리나라에 전하였는데 그 돌림병이 점차 복잡하여 온 나라를 휩쓸어 집집마다 죽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 우물이란 우물은 모두 폐쇄되어 온 마을에는 먹고 마실 물이 써가 말라붙어 버렸다는 이야기였다. …(중략)… 환자의 몸을 만져 율을지도 모르는 돌림병 따위로는 조금도 무섭지가 않았다. 중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 엄청난 아비규환의 지옥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생생한 현실이었다. 이곳은 지옥이다. 이것은 무간지옥(無間地獄)이다.(1권, 129-132면)

경허는 17년간 교학을 공부하였는데 지식으로 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인간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 고통의 근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때 경허가 채택한 화두가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닦쳐왔다”는 것이며 이 화두를 듣고 참구하게 된다.

그러한 학문이, 그러한 교법이 중생의 저 지옥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해탈에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그 많은 법륜이 역병에 돌아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누워 죽는 저 세속의 가없는 중생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인가.

그야말로 마음에도 없이 입으로만 외는 헛된 공염불이 아닐 것인가. 내가 17년간 그 모든 학문을 섭렵하여 두루 정통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 문자가 저 가없는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을인가. 그 문자가 가없는 중생들을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 극락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인가.(1권, 213면)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경허는 여태까지 공부해온 문자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교학으로는 가없는 중생들을 제도할 수 없음을 알고 문자의 속박에서 과감히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용맹정진을 한다. 그가 화두를 들면서 더 깊은 의심을 내면서 자신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를 비로소 깨닫고 자각하게 된다.

경허는 어린나이에 동진출가를 함으로써 세속과 차단된 세계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비규환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는 큰 충격을 받고 '왜'라는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의문(疑問)의 단계로써 이원적 분별심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모순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쓸 때 긴장감은 높아지고 집중력이 배<sup>15)</sup>가 된다. 경허가 동학사로 돌아와 '묵언패'를 내걸고 용맹정진을 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경허는 그 송곳으로 얼굴 아래 턱밑에 받쳐 들고 앉아 있었다. 조금이라도 깜빡하여 턱이 끄덕거리면 끝이 뾰족한 날카로운 송곳은 어지없이 얼굴을 찌르고 턱밑을 찌르도록 되어 있었다. 벌써 수십 차례 송곳은 얼굴을 찌르고 턱밑을 꿰뚫어 그곳에서 흘러내린 핏물이 온통 얼굴과 턱으로 흘러내려 그토록 치찰한 귀신의 형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2권, 23면) (중략)

그는 학문을 버리려 한다. 교학을 버리고 선지(禪旨)로 들어서려 한다. 교문과 선지는 결국 하나이지 둘은 아니지만 그는 '묵언'의 대신언을 통하여 '말없음으로써 말없는 곳'에 이르려고 용맹정진하고 있음이다.(2권, 24-25면)

경허가 정한 화두가 영운선사의 "나귀의 일이 다 끝나기도 전에 말의 일이 다했다"는 화두이다. 그는 화두를 풀기 위해 목숨을 걸고 깊은 생각을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의심이 체념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다른 세계에 진입하기 위한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단계이다. 화두는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것들

15) 자명, 앞의 책, 90면.

### 366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로 이루어져 있으며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말들로 되어 있다. 그는 이원적이고 대립적인 내면의 분별이 텅 비워질 때까지 화두를 놓지 않고 점점 더 깊은 의심 속으로 들어간다.

의문의 단계를 지나면 의정(疑情)<sup>16)</sup>의 단계로 진입한다. 경허는 화두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큰 벽을 만나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의문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심리적 벽에 부딪치는데 그 원인이 아직까지 머릿속으로 분별하고, 헤아리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에 대해 차별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허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중생의 분별심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며 정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

경허는 불성을 보아 견성(見性)하려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분별하고, 사려하고, 차별하고 상상하면서 끊임없이 불성의 쿿구멍에 구멍을 내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고 갈 수 있도록 길들이려 하고 있었으며 달려라 하면 달려고 서라 하면 서는 길들이 말처럼 불성의 머리에 굴레를 씌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음을 등은 사미의 절문에서 마침내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3권, 46면)

인용문에서 보듯 경허는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분별심을 제거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며 의단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의단<sup>17)</sup>은 화두수행의 마지막 단계이다. 경허의 '의심 덩어리'는 최고조에 이르게 되며 사미에게서 "소가 되어도 고삐 뚫을 구멍조차 없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화두를 타파하며 온 천지의 만물이 그대로임을 깨닫게 된다. 이때 경허가 지은 오도가(悟道歌)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16) 자명, 위의 책, 91면. 의정(疑情)이란 의문스러운 감정을 말한다. 그냥 좀 궁금한 것보다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논리적 탐색이 좌절되거나 더 이상 자신의 한계 안에서 연구가 불가능할 때 생각이 벽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벽에 부딪혔을 때 의문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답답해지며 의문스러운 감정이 계속된다. 이것을 의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17) 의단(疑團): 의정이 생겼을 때는 열심히 수행하면 여타의 번뇌는 사라지고 의정에 집중하게 된다. 문제의식은 점차 집중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의단' 또는 '의심덩어리'라고 부르게 된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므로 의단이 생기는 것이다.

홀연히 사람에게서 고삐 뿜을 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고 문득 깨닫고 보니 삼천대천세계가 다 내 집이로구나. (3권 35면)

경허는 자신의 화두를 타파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 후로 성과 속을 넘나들며 온 천지를 유랑하며 지내다 입전수수(入塵垂手)<sup>18)</sup>의 단계인

18) 심우도 그림의 마지막 단계이다. 심우도(Ten Bulls)는 선불교에서 견성에 이르는 참선 수행의 과정을 10개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3873)에서 괘암의 심우도를 각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심우(尋牛)는 소를 찾는 동자가 망과 고삐를 들고 산속을 헤매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것은 처음 발심한 수행자가 아직은 신이 무엇이고 본성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찾겠다는 열의로써 공부에 임하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 ② 견적(見跡)은 소 발자국을 발견한 것을 묘사한 것으로, 순수한 열의를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본성의 자취를 어렵잖이나마 느끼게 된다는 것을 소의 발자국으로 상징한 것이다.
- ③ 견우(見牛)는 동자가 멀리서 소를 발견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는 본성을 보는 것이 눈앞에 다다랐음을 상징하고 있다.
- ④ 득우(得牛)는 동자가 소를 붙잡아서 막 고삐를 낀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 경지를 선종에서는 견성(見性)이라고도 하는데, 마치 땅속에서 아직 제련되지 않은 금들을 막 찾아낸 것과 같은 상태라고 많이 표현된다. 실제로 이때의 소는 검은색을 띤 사나운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아직 삼독(三毒)주 01)에 물들어 있는 거친 본성이라는 뜻에서 검은색을 소의 빛깔로 표현한 것이다.
- ⑤ 목우(牧牛)는 거친 소를 자연스럽게 놓아두더라도 저절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끔 길들이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삼독의 때를 지우는 보인(保任)주 02)의 단계로, 선에서는 이 목우의 과정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한번 유순하게 길들이기 전에 달아나 버리면 그 소를 다시 찾겠다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준 것이다. 이때의 소는 길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차츰 검은색이 흰색으로 바뀌어 가게 묘사된다.
- ⑥ 기우거가(騎牛歸家)는 동자가 소를 타고 구멍 없는 피리를 불면서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때의 소는 완전한 흰색으로서 특별히 지시를 하지 않아도 동자와 일체가 되어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며, 그때의 구멍 없는 피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가히 육안으로 살필 수 없는 본성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상징하게 된다.
- ⑦ 망우존인(忘牛存人)은 집에 돌아와 보니 애써 찾은 소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남아

368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세상 속으로 들어와 혼장노릇을 하다 생을 마감한다. 이것을 간략하게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화두 단계 | 경허의 수행 과정  |
|-------|--|
| 의심    | 아비규환의 생생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교학의 한계를 절감함.<br>문자가 가없는 중생들을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 극락으로 인도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함.                       |
| 의문    | 동학사로 돌아와 강원을 철폐하고 묵언정진을 시작함.<br>말없음으로써 말 없는 곳에 이르려고 용맹정진하며 이원적 분별심을 버리려고 애쓰는 단계.<br>화두: “나귀의 일이 다 끝나기도 전에 말의 일이 닳쳐왔다.” |
| 의경    | 화두를 해결하지 못하고 큰 벽을 만나 진퇴양난에 빠짐.   |
| 의단    | 경허의 의심덩어리는 최고조에 이르게 됨.<br>동은 사미에게서 “소가 되어도 고삐 뿜을 구멍조차 없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화두를 타파함.   |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결국 소는 마지막 종착지인 심원(心源)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므로,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방편은 잊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멧목을 타고 피안에 도달했으면 멧목을 버려야 한다는 교종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 ⑧ 인우구망(人牛俱忘)은 소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잊어버린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텅빈 원상만을 그리게 된다. 객관이었던 소를 잊었으면 주관인 동자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객 분리 이전의 상태를 상징한 것으로, 이 경지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일컫게 된다.
- ⑨ 반본환원(返本還源)은 이제 주객이 텅빈 원상 속에 자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치는 것으로 묘사된다.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조그마한 번뇌도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상징한 것이다.
- ⑩ 입전수수(入塵垂手)는 지팡이에 큰 포대를 메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때의 큰 포대는 중생들에게 베풀어 줄 복과 덕을 담은 포대로, 불교의 궁극적인 뜻이 중생의 제도에 있음을 상징화한 것이다.

한국의 간화선이 맥이 끊겼지만 근대 선불교를 부흥시키고 제2의 원효라고도 불리는 경허의 일대기 속에 그가 화두를 들고 고민하고 타파하기까지의 과정이 소설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소설에서처럼 경허는 의심, 의문, 의정, 의단의 단계를 거쳐 문자의 한계를 절감하고 선(禪)의 단계에 들어 자신의 이기심과 분별심을 버리고 깨닫고 난 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 후 대중 속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 갖가지 체험을 하다가 1912년 64세로 생을 마감한다.

이상과 같이 경허의 삶을 정리해보면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교학을 배우게 되나 그 한계를 절감하고 문자를 넘어서는 세계로 진입한다. 거기서 경허가 깨달은 것은 세상 속에서 고통 받는 중생과 삶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이 최인호가 추구한 구도의 실천적 길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최인호의 구도적 상상력<sup>19)</sup>은 경허라는 인물이 보여준 것처럼 세속과 성스러운 세계를 이분화하지 않고 결핍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장에서는 경허를 화두로 삼고 그를 따라가는 강빈의 화두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로 하자.

## 2.2. 강빈의 수행과정과 ‘화두’

『길 없는 길』의 강빈은 출생의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다. 그는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중 시국사건에 연루되어 휴직서를 제출하고 집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던 중 경허라는 이름을 접하고 어느 책에서 읽은 거문고를 따라 수덕사에 가게 된다. 그곳에서 거문고를 볼 수 있다는 통지를 받고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 거문고는 고려 공민왕 때 만들어져 많은 사연을

19) “한 일생을 통해서 3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내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지배했던 ‘경허’, 또한 그 경허라는 것들을 통해서 홀연히 다가서던 불교라는 그 엄청난 수미산의 방대한 숲을 엿볼 수 있었던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으랴?(중략) 그렇다. 경허야말로 나다. 내가 곧 경허인 것이다.”: 최인호, 『길 없는 길』, 여백, 2013, 16-17면.

### 370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겪고 의친왕의 손에 남겨진 내력을 가지고 있다.

이때 만공이라는 스님이 의친왕을 찾아와 그날 밤 사제의 관계를 맺고 그 신표로 거문고를 가져간다. 만공은 의친왕에게 일곱 알로 되어 있는 염주를 신표로 주게 되고 이 염주에는 ‘월면 만공’과 ‘경허 성우’라는 여덟 글자가 새겨져 있다. 아버지 이강 공은 강빈에게 염주를 건네준다. 그 한을 풀기 위해 수덕사에 가면서 강빈의 화두는 시작된다. 그의 화두는 경허이며 경허의 발자취를 따라 평생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은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강빈이 화두를 타파해 가는 과정이다. 『길 없는 길』에서 강빈이 화두를 풀어가는 과정을 분석해 보겠다. 그가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단계는 아버지의 유품인 거문고를 찾으러 수덕사로 향하면서 부터다. 그는 이강 공의 숨겨진 자식이며 평생토록 출생에 얽힌 사연을 비밀로 간직하며 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수덕사에 간다. 거기서 주지인 범명 스님을 만나면서부터 더 깊이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아버지.

거문고를 통하여 나는 아버지를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내 심장을 갈가리 찢고 내 입에서 비탄 소리를 토해내게 하였습니다. 이제야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였던 마음속의 비밀을 털어놓겠습니다. 아버지, 제 고해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중략)… 당신은 내가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하였던 바로 그 아버지인 것입니다.(1권, 111면)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강빈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드디어 거문고를 보면서 아버지를 인식하게 된다. 마음에 품었던 말을 거문고를 통해 토해내면서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정면으로 대면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화두를 푸는 단계 중 이 부분은 ‘의심’의 단계에 해당한다.

‘의문’의 단계는 수덕사에 거문고를 찾기 위해 가서 시작된다. 경허가 만든 참선곡을 듣고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염주에 씌어있는 ‘경허 성우’라는 네 글자를 확인한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강빈의 화두도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데 그가 두 번째로 경허를 만난 것은 어머니를 위해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 간 천계사였다. 강빈은 사생아였고 어머니는 비천한 기생의

신분이었으므로 대학교수인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어머니와 강빈은 서로 만나지 않고 지낸다.

가난한 농가의 딸로 태어나 열셋의 나이로 권번(券番)에 팔려가 가무를 배우고 기생이 되어 열여섯의 나이로 환갑이 넘은 아버지를 만나서 화관을 벗고 머리를 풀었다.

비록 동기(童妓)의 순결한 몸이었다고는 하지만 기생이란 신분이 낮은 비천한 천민. 그 천민의 몸으로 황실의 피를 받고 승은을 입었다. 왕자라 하지만 멸망하여 나라도 황실도 빼앗겨 거세당한 이름뿐인 왕자. 그 성은도 대역섯 차례였을 뿐 받은 것이라고는 짐 한 채. 그리고는 잊혀진 여인이 되었다. 잊혀진 여인은 왕가의 사생아를 배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왕손을 낳았다. 왕손을 낳았으나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성은을 입은 몸이라는 것을 밝히지도 못하고 인정조차 받지 못한 여인은 그 아들에게 자신의 성인 강(姜)씨를 물려줌으로써 사생아로 만들었다.(1권, 322면)

인용문에서 보듯 강빈의 마음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원망, 그리고 분노가 도사리고 있다. 자신을 사생아로 만든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절하며 지내다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는다. 강빈은 초상을 치르면서 지난 날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는 누구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한다. 그는 어머니의 친도제를 지내기 위해 찾아간 청계사라는 절에서 뜻밖의 사실을 발견한다. 그의 의식 속에 떠오르지 않았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첫 번째는 청계사에서 그가 아버지와 처음 만났고, 염주를 전해 받았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경허가 아홉 살의 어린 나이로 어머니를 따라 동진 출가하여 사발한 곳이 바로 청계사라는 것이다. 결국 강빈은 청계사에서 어머니의 친도제를 마치고 진정 그녀가 누구인지, 어머니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더 깊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고민하기 시작한다.

어머니의 유골을 건져올리면서 나는 강한 의문이 가슴 속으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리꽂히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나를 낳았던 어머니의 뼈란 말인가. 그녀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녀의 삶의 흔적은 어디에 남아 있던 말인가. 내가 알고 보았던,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고, 나를 낳아 준 그 여인은 어디로 가버렸단

### 372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말인가.(1권, 319-320면)

강빈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해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어머니는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머니 역할을 평생하다 돌아간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이 자신을 가두는 번뇌고 집착이라는 것을 서서히 인식한다. 기존의 생각이 고정관념이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부대끼는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는 단계이다.

이때 더 이상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자 선지식인 범명스님을 찾게 된다. ‘의정’의 단계에서 강빈은 답답하고 오리무중인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처음 만났던 범명스님을 만나러 간월암을 찾아가서 염주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고백한다. 심리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강빈에게 범명스님은 그가 틀을 깨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 동안 염주를 간직해 오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그 물건이 체계는 천근의 무게처럼 무거운 짐으로 느껴져 왔기 때문입니다. 전 이제 그 물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부러놓고 훌가분해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무겁다구요.” …(중략)… “천근처럼 무거웠던 것은 이 염주가 아니라 이 염주를 보는 강교수님의 마음이었지요. 버려야 할 것은 그러므로 이 염주가 아니라 강교수님의 마음이었지요. 그 천근 무게의 마음을 벗어나야 비로소 훌가분해지시겠지요.” …(중략)… “이 염주야말로 강교수님의 운명이며 인연이며 업(業)이며 번뇌입니다.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붙들고 직시하십시오.”(2권, 267-268면)

이와 같이 강빈은 염주에 얽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그 고통에 대해 직면한다. 그 결과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며 자기 성찰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어머니는 있는 적도 없고, 실재하지도 않았으며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이름’의 허상만 있었을 뿐 본디 허공화(虛空華)에 불과한 것”(1권, 378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을 평생 고통 속에 가두었던 염주를 버리려 한다. 하지만 범명

스님은 염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일 뿐 정작 자신을 괴롭힌 것은 실체가 없고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강빈이 깨닫도록 독려한다. 여기서 두 사람의 문답을 통하여 화두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깊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빈은 의단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자신을 괴롭히던 번뇌도 어느 정도 소멸된다.

“강교수님이 경허이며, 경허가 바로 강교수님입니다. 그를 찾아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깨우친 소(醒牛)인 경허를 찾아 ‘길 없는 길’의 여행을 떠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진리의 소를 찾아 첫발을 내딛는 최초의 시간일 것입니다. 죽어도 그와 함께 죽고 살아도 그와 함께 사십시오. 그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2권, 276면)

강빈은 단 한 순간도 경허를 놓지 않고 따라가다 드디어 염주를 범명에게 전해주고 경허라는 화두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머니의 유골함을 깨끗이 비우고 경허와 나를 분리해서 바라봄으로써 그 동안의 고통에서 놓여나게 되고 화두를 타파한다.

경허가 나의 소며, 말이며, 나귀였다면 이제 나는 그 소인 경허에서 말인 경허에서, 나귀인 경허에서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분명히 말해 지난 수년 간 경허는 나였으며 나 또한 경허였지만 이제는 ‘경허는 경허고 나는 나인 것’이다.(4권, 272면)

나의 화두가 타파되고 새 학기부터 학교에 복직하라는 통보를 접한다. 이와 같이 강빈은 평생 풀지 못한 자신의 응어리를 ‘경허’라는 화두를 통하여 문제인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자기성찰의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 화두를 풀면서 자신의 인식변화로 인해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해방되어 마침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되고 있다.

이 과정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374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 화두 단계 | 강빈의 수행 과정   |
|-------|---|
| 의심    | 아버지의 유골인 거문고를 찾으러 수덕사로 감. 거문고를 보면서 출생에 얽힌 자신의 비밀에 대해 직면하기 시작하면서 고통을 인식함.                      |
| 의문    | 수덕사에서 ‘경허 성우’란 글자를 보고 경허의 발자취를 따라 청계사로 감.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며 그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고통의 과정을 거침. |
| 의경    | 간월암으로 범명스님을 만나러 감. ‘염주’를 버리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괴로워 함.   |
| 의단    | 강빈은 염주를 되돌려주고 돌아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있는 그대로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며 받아들이고 경허와 나를 분리함. 학교에 복직됨.                  |

이상과 같이 최인호는 화두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를 인물의 행적을 통해 서사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인간이 살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쳐보고 고정관념을 깨면서 성찰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선불교의 수단인 화두라는 방식을 빌어 소설화하고 있다.

『길 없는 길』에서 문학적으로 아쉬운 점은 신문연재소설이고 장편소설이기에 불교의 교리가 책 전면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화두 하나를 해결하는 과정이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또 평생토록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 실제 인간의 삶이다. 최인호는 불교 교리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도 촉박했을 것이고 체득하는 시간도 부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는 점은 소설사에서 가치 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 3. 구도적 상상력의 실천적 문제

최인호는 구도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한 작가이며 그 흔적이 소설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소설 속에서 보면 아래와 같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참다우며 무엇이 올바른 인간의 길인가. 우리 인간은 무엇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나 길 위에 떨어져 있다. 길 위에서 태어나고 길 위에서 자라며 마침내 길 위에서 죽어간다. …(중략)…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을 꿈꾸는가. 보다 많이 갖고, 보다 많이 유명해지고, 보다 많이 즐기는 욕망인가. 그것은 짐승의 길이다. …(중략)…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인간의 길인가.(3권, 176-177)

『길 없는 길』에는 작가가 고민한 과정이 경허와 강빈이 화두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자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게끔 서사화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작가가 제시한 것은 실천의 문제이다.

“최인호의 종교적 세계관은 곧 작가의식과 연결되며, 그의 문학세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바탕”<sup>20)</sup>이 된다. 결국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다. 인간에 대한 넓어진 이해의 폭으로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최인호 작가가 보여준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입전수수(入塵垂手)로서 저자거리에 내려가 중생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진정 깨닫고 난 후의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경허의 삶 속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절을 떠나 세상 속에서 훈장노릇을 하며 살아간다.

“어디 사는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다만 내 이름은 박(朴)씨에다가 난(蘭), 주(舟)라고 부르고 있소이다.” 박난주 …(중략)… 어쨌든 경허는 그때부터 박씨 성을 가진 난주라는 새 인물로 되살아나게 된다.(4권 224면)

20) 김인경, 앞의 책, 9면.

376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인용문에서 보듯 “구원을 피안이 아니라 지상에서 찾으려는 것”<sup>21)</sup>이 최인호가 지향한 문학관이자 종교관이라 할 수 있다. 화두를 통해 깨달았다고 해서 사람과 동떨어진 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작가의 목소리다. 『길 없는 길』에서 경허를 보면 앞서서 참선수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화두를 풀고 나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온다. 들어와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채 사람들과 더불어 훈장노릇을 하며 살다 생을 마감한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하는 종교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깨달았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으며 현실 속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실천적 삶이라는 것을 최인호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강빈 역시 자신의 화두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 그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자살을 하거나 산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학교라는 일상의 공간으로 돌아감으로써 학생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결말을 처리하고 있다.

봉투를 찢자 안에서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은 학교의 행정 담당자로부터 온 것이었다. 새 학기부터 학교에 복직되었음을 통고한다는 내용의 편지였다.(4권, 334면)

이처럼 강빈은 “현실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성찰하는 것”<sup>22)</sup>으로 끝을 맺고 있다. 학교로 돌아갔을 때의 강빈은 처음의 강빈이 아니라 훨씬 깊이 있고 성숙해졌으며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예고하고 있다.

최인호가 영적 목마름으로부터 출발한 종교적 세계관은 사회와 소통하고 나누는 실천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허와 강빈이라는 두 인물이 화두를 통하여 삶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 작가의 구도의식이 현실화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21) 황경훈, 앞의 책, 162면.

22) 김인경, 앞의 책, 14면.

#### 4. 나오는 말

본 연구에서는 최인호의 소설 『길 없는 길』에 나타난 구도적 상상력이 무엇인지, 또 그 실천적 문제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다.

우선 『길 없는 길』은 중앙일보에 3년간 연재한 소설이며 최인호 작가의 영적 목마름이 이 소설을 쓰는 계기가 되었다. 이 소설은 그가 여태까지 창작한 기존의 소설과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한국 선불교의 수행수단인 '화두'를 서사장치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실험적이면서도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두 인물 경허와 강빈이 자신의 화두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화두를 푸는 과정이 눈에 보이는 과정은 아니지만 '의심→의문→의정→의단'의 단계로 진행되면서 마지막으로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단계로 나아간다.

최인호가 제시한 구도의 실천적 삶은 자기성찰에 도달하고 나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고통을 나누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이 소설은 장편소설이며 네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방대한 불교이론이 문학적으로 승화되지 못한 채 교술 적으로 쓰인 부분도 많다. 하지만 한국 소설사에서 화두를 서사적 장치로 활용한 점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 『길 없는 길』은 연구하기 쉽지 않은 소설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특히 서양이론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이 아닌 동양의 이론에서도 마음을 분석하는 방법이 서양보다 훨씬 더 빨리 발달했음을 알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설분석에 접근해서 가치 있는 연구가 나오길 바란다.

378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 [Abstract]

##### A Study on Compositional Imagination in In-Ho Choi's Novel

Kim, Musuk  
Silla University

In this paper, we analyze how to embrace poetry, which is the core of Zen Buddhism, as a narrative in Choi In Ho's *The Way Without Way*.

In particular, the world that can not be expressed in Zen Buddhism is called an unidentified character or a language tongue. That is to say, *The Way Without Way* is an experimental novel that attempts to express the ultimate world that can not be expressed in letters. In this novel, 'narrative' is used as a narrative device to literally embody the wordless world. In other words, it is called a public prosecution,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a series of process of discovery and recognition of a problem and escaping from the problem. This stage is going through four stages in the human mind and consists of doubt, question, consent, and order.

Choi In-ho depicts this process as a novel through the act of characters in *The Way Without Way*. He describes the process of releasing the character Gyeongheo, who is the main figure in the novel, and the real person, Gangbin. First of all, Gyeongheo feels the limit of teaching and throws out letters, so he enters the world and lives with people and transcends his limitation. Next, Gangbin, a college student, knows the secrets of his birth and is painful, but eventually accepts his fate and returns to a normal, realistic school.

Therefore, *The Way Without Way* is a practical life of the composition pursued by Choi In-ho pursuing the life in which the two people live with the worldly people through the device called "topic". In conclusion, I can understand that the writer's eagerly-planned life is not a life that is separated from the world but a life that communicates with the public finally after solving his problem.

The artistic acumen of Choi In-ho and the religious view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Way Without Way* that it was a practical life that lives with people.

**Key word:** Gyeongheo, Gangbin, Topic, Practical Life, Composition, *The Way Without Way*, Zen Buddhism, Communication.

380 국제언어문학 제41호(2018.12.)

## 참고문헌

### □ 단행본

- 신홍식, 『경허집』, 유마강원, 2014.  
이동하, 「한국 현대소설과 종교의 관련 양상」, 푸른사상사, 2005. 32면.  
자명,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 민족사, 2014.  
최인호, 『길 없는 길』 1.2.3.4권, 여백미디어, 2014.  
『한암일발록』, 한암문도회, 민족사, 1995.

### □ 논문 및 기타자료

- 강태산, 「경허의 수행상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 2010.  
김무숙, 「김일업의 선(禪)적 문학관 고찰—『청춘을 불사르고』를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제40호, 2018.  
김인경,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불교적 인식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 63집), 2017.  
심재욱, 「최인호 단편소설 <타인의 방> 서사구조연구」, 『우리문학연구』 45집, 2015.  
오경후, 「경허·만공의 범백과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 『동학연구』, 제26집, 2009.  
음영철, 「최인호 소설에서의 불교사상과 동아시아 담론」,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2호, 2019.  
황경훈, 「최인호 소설의 종교성 탐구」, 『신학전망』 192, 2016.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3873

이 논문은 2018년 11월 15일 접수되어 12월 10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7일 게재 확정됨.